

주임신부	김지영(사무엘)
부주임신부	진창훈(시몬)
사무실	☎ 02-2661-2234
	Fax 2661-2236
연령회장	010-5305-0328
고해성사	매 미사 15분진



www.banghwa3.com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50길 16

주일 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18:00(중고등부 일반)
	06:00(일반) 07:30(일반) 09:00(일반) 10:30(교중) 12:00(어린이 일반) 19:00(청년 일반)
평일 미사	월 : 06시 화,수,목,금 : 10시
상제 신심	첫째 수요일 10시
상모 신심	첫째 토요일 10시 (혼인 · 태아축복 · 유아세례)

**☎ 전세대 교무금 책정 100% 달성을 위하여**

\*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5-902-861646 \* 예금주 : (재)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구세주의 어머니이며 우리의 어머니**

우리는 마리아를 '천주의 성모'라 합니다. 즉'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기에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일국의 장관이라면 그의 어머니를 장관의 어머니라 부릅니다. 성모님 역시 하느님의 위대한 속성을 낳은 분은 아니지만 그의 아들이 하느님이시기에 하느님의 어머니가 됩니다.

또한 마리아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십니다. 그 결정적인 근거는 요한복음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요한 19,26-27)

성서의 말씀에 따라 모든 신앙인과 마리아 사이에는 모자(母子)관계가 맺어집니다.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에 성모님의 자녀가 되고 마리아는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톨릭 신자들은 마리아를 공경하고 마리아께 효성을 드리며 신앙의 어머니로 공경(恭敬)하는 것입니다.

김지영(사무엘) 주임사제

**※ 주일미사 (7월 구역별 미사시간)**

요일	시간	구역
토요일	저녁 6시	전신자
주일	오전 6시	9,10 구역
	7시 30분	1, 2 구역
	9시	3, 4 구역
	10시 30분	5, 6 구역
	12시	7, 8 구역
	저녁 7시	전신자

\* 성당문은 매일 오전 9시-12시까지 개방합니다.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 지난 6월 27일 故김분기(말지나)님의 상장례에 연령회와 본당 교우분들의 애뜻한 기도에 감사드리며 김현숙(안나)님택 에서 문화 복음화 기금으로 50만원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깊은 애도와 더불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우리들의 정성된 봉헌 (6/21-6/27)**

- 교무금 ..... 6,795,000원
- 주일헌금 ..... 2,079,000원
- 건축헌금 ..... 1,803,000원
- 특별헌금(교황주일) ..... 200,000원
- 성소후원금 ..... 10,000원
- 사회복지후원금 ..... 120,000원
- 사순저금통 ..... 1,741,480원
- 백신나눔 ..... 310,000원
- 감사헌금 ..... 470,000원

김병완1만/김동일5만/백종현5만/김애리다10만  
익명20만/김동천1만/홍예지5만

**☎ 7월 성체 신심 미사 안내**

\* 성체 신심미사 : 7월 7일(수) 오전 10시